

## 임포 원인 60% 심혈관 순환 장애

**임**포(성불능)의 원인은 대개 심혈관의 순환 장애이며, 따라서 심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마드리드에서 열린 임포에 관한 국제회의 의장인 스페인의 아리고 테하다 박사가 지난 10월 3일 밝혔다.

테하다 박사는 약 9백명의 임포치료 전문의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임포의 원인은 심혈관 순환 장애가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혈관확장 치료가 임포에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테하다 박사는 또 임포는 담배·미약을 끊거나 과음을 중지하면 치료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그것은 이런 것들이 음경 신경을 손상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혈압이 높거나 남성 호르몬 분비량이 적거나 우울증이 있는 남성이 성기능 장애를 나타내는 수가 있다고 테하다 박사는 말했다.

테하다 박사는 스페인의 경우 40세 이상 남성의 30% 정도가 일시적인 임포 증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밝히고 다른

나라의 경우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테하다 박사는 그러나 임포는 치료될 수 있는데도 많은 환자들이 이를 포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스페인의 경우 전문의를 찾는 임포환자는 전체의 2%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통신)

## C형 간염바이러스, 심근증 유력원인

간염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C형 간염바이러스가 심근증(心筋症)의 유력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지난 9월 30일 보도했다.

심근증은 심장 근육의 이상으로, 심해질 경우 심장 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데, C형 간염바이러스는 최근 가장 이외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몇 차례 발견된 바 있다.

일본 교토(京都)대학병원 제 3내과의 마쓰모리(松森) 강사는 확장형 심근증환자 31명의 심근세포 바이러스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6명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밝혀 냈다. 이와 함께 비대형 심근증 환자에게서도 53명 중 9명이 C형 간염 항체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심근증은 심장의 벽이 얇아져 생기는 확장형과 벽이 두꺼워지는 비대형으로 대별된다.

마쓰모리 강사는 심근증 환자에 간염 증상은 별로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구체적인 형태가 다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심근증의 20%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심근증의 최대 원인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연합통신)

## 에이즈 예방, 소외 계층 위험 줄여야

에이즈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매춘부나 미약 중독자 등 사회의 소외계층을 통한 에이즈 노출 위험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유엔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지적했다.

유엔 에이즈 책임자인 테레시아 바가사오 여사는 마닐라에서 열고 있는 에이즈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미약 중독자들에게 대한 무료 주사기 제공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가사오 여사는 이어, 이 같은 발상은 이들 소외계층을 동성애자들처럼 조직화하거나 권한을 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때

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들 계층에 대해 반차별적 기본 인권의 인정, 프라이버시권, 이동과 표현의 자유, 근로 및 비인간적 처우의 배제 등이 필요하다면서 소외계층이 에이즈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 주는데 도움이 되는 이같은 "해약 감소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 등 아시아 지역 의료 전문가들은 미약 중독자들에게 대한 주사기 제공이 오히려 이들의 미약 남용 행위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 계획의 한 실행사항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는 성 접촉이나 주사기를 함께 사용하는 일 등에 따른 신체 상의 유액을 통해 확산되며, 매춘부, 미약중독자, 동성애자들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2

